

Radical Disciple V.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1. 군중과 제자

군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확연히 다르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군중들의 필요에 민감하셨다. 그리고 응답하셨다. 제자들은 다르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묶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 군중과 다른 기준이 있으셨다.

군중은 자신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가 예수님을 따라 갔지만,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다. 군중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제자들은 도움을 주는 자로 부르셨다. 군중은 돌봄이 키워드 였다면 제자는 '훈련'이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훈련이었다.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전 훈련이었다.

2. 제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보고, 듣고, 움직여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다. 예수님처럼 땅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보이셨다.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군중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제자들을 위한 교육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닫혀진 하늘의 문을 다시 우리 가운데 여시기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하늘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제자들에 보이셨다.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삶의 '본질'을 가르치셨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이셨다. 완벽하고, 권위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 제자들을 위한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단 하나이다. 그들 안에있는 '땅의 사고', 믿음의 사고, 영적인 사고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제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옛 자아, 옛 모습에서 나와서 이제 십자가 부활 후 우리에게 회복하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 복음서의 제자

땅(육망의 사고관), 성령받기 전의 사고방식, 육의 사고는 노력으로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이미 구원받고 회복된 우리는 주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20:21]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 사도행전의 제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다.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다. 그들을 묶어 두었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렸다. 그 광경을 보고 그들을 지키던 간수가 두려워 죽으려 할 때 제자들은 "우리는 나가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가야 하는 것이 인간적 사고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이다. 간수의 영혼을 위해서이다. 자기육망의 사고를 하고 있던 복음서의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워 하는 자들이다.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3. 마가복음 9장의 귀신들린 소년

오늘 마가복음 9:14-29절의 본문을 보면 귀신들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이다. 예수님은 군중들과 달리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실재를 경험시키기 위해 '필드(현장)'로 보내신다. 필드에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이다. 군중과 다른 제자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기 위함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들린 소년을 고치지 못한다. 그래서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한다. 18절 '~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본심이 나타난다.

[마가복음 9:19]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말인가? 십자가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늘의 능력을 풀어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시다. 그러시면서 강력하게 믿음의 사고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 모든 일에 응답이 있다. 모든 불가능한 일에 대하여 언제나 '가능성의 예와 아멘'을 열어둔 사람이 제자들이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 내신다. 그 광경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다.

[마가복음 9:28-29]

28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다. '기도'이다. 기도말고는 답이 없다. 이 땅의 불가능한 모든 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임을 분명히 하셨다.

4.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의 태도와 기도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응답받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는 것일까?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움직이는 '본질'에 대한 것이다. 보여지는 것을 알려면 그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본질이다.

* 기도는 무엇인가?

(1)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라는 것이다. (성령에 대한 이해 - 성령님 안에 인격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소통'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관계'이다.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인격적 관계와 소통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라. 여러 이유를 통해서 마음안에 '정서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와 같은 정서적 장애가 인격적 관계를 통한 정상적 소통을 막는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대화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에 있는 것이다.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 소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말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응답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격이 있는 것처럼 (아이, 어른 / 각 계층 / 영역 등)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이 속담의 핵심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갚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 그 예가 백부장이다. 예수님을 향한 백부장의 태도를 보라.

[마태복음 8:7-10]

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 주마."

8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들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올 것입니다."

9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10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백부장의 간구는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께 간구할 때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 겸손하다. 백부장이라는 권력이 있으면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8절).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가? 9절에 자신이 권력있는 사람이기에 권력을 안다고 말한다. 그와 같이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마음의 태도를 보고 놀라워 하였고, 그와 같은 마음의 태도를 지닌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으로 소개하셨다. 무슨 말인가?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의 태도는 다르다. 소통할 줄 알고, 교제할 줄 안다.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죄인들의 겸손한 기도와,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중 하나님이 들으셨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진실한 마음의 기도 - 감동의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화려한 미사여구의 마음없는 기도엔 응답하지 않으신다. 진실함은 간절함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바로 자식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이다. 자기 문제처럼 기도한다. 그래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 간절함이 있으셨다. 진실함이 있으셨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이다.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 마음으로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응답받았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한다.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이다. 분명한 기도이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분명히 기도하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인다. 하나님은 그 때 감동하신다. 감동 받으면 문이 열린다. 감동은 공감대의 형성이다. 내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감동의 기도를 하자. 하늘이 열릴 것이다.